

로봇 주요 뉴스(09/07)

[국내]

- 삼성 휴머노이드, 내년 CES서 첫선
- 로보티즈 "다음 목표는 휴머노이드 솔루션 출시"
- 나무가, 북미 휴머노이드에 카메라 모듈 공급
- 케이엔알시스템 "3톤 하중 버티는 로봇다리 개발"
- 한화로보틱스, 1년 만에 230억 추가 수혈

[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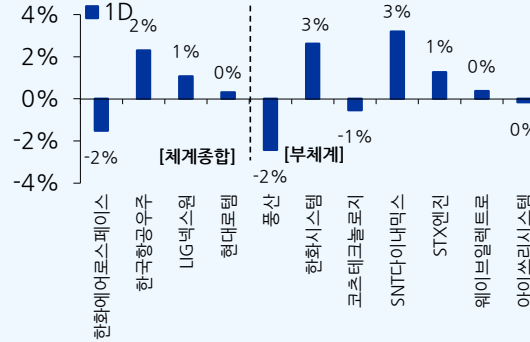
- 어질리티로보틱스, 2025년 180만 달러 매출 기록
- 美 RAI, 정교한 조작 구현한 '코알라 그리퍼' 공개

Zoom-In

[CES2027 주인공은 삼성]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내년 1월 CES 2027에서 자체 개발 휴머노이드 시제품을 처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됨.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산업용 HW·양팔로봇·모바일 플랫폼의 빠른 상용화, 삼성은 AI·플랫폼·범용 휴머노이드에 집중하는 분업구조가 구체화되고 있음.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시의 제각종 시장 동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시의 동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결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가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충당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방산 주요 뉴스(09/07)

[국내]

- LIG D&A, 폴란드 MSPO서 다층방공망·KGGB 전시
- 한화, KAI 인사회 진입 추진에 수은 "막을 명분 없다"
- 한·필리핀 국방 장관 회담. "방산 협력 더 강화"
- 엠앤씨솔루션, 폴란드 MSPO 첫 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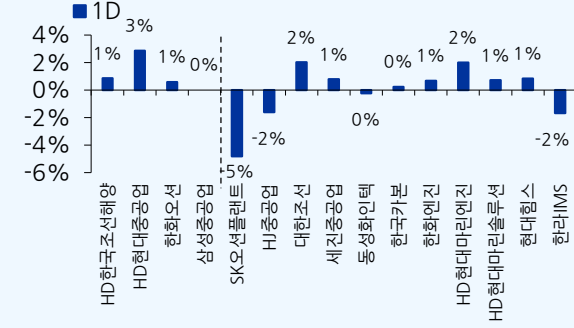
[해외]

- 스웨덴, 7.3억 달러 규모 HIMARS 계약
- 폭스바겐, 독일 공장 라파엘에 매각. 방산 전환

Zoom-In

[오늘, 크로아티아 천무 계약]

- 크로아티아 정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18대 도입을 승인. 오늘(8일) 계약. 총 사업비는 사업비 € 544m. 천무 장점으로 ① 24~36개월의 짧은 납기, ② 높은 가용성, ③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④ 산업협력에 대한 개방성 제시. 이미 HIMARS를 구매한 크로아티아가 천무를 구매한 것은 상징적임.



조선 주요 뉴스(09/07)

[국내]

- 한화 '오스탈USA' 인수전에 美 경쟁자 등장
- 오스탈 CEO "한화 제안, 美 국방부 수뇌부 지지"
- 김정은, 강건호 취역식서 '해군 핵무장화 실현' 공언

[해외]

- 조디악 마린타임, 조선소들과 LNG 운반선 신조 논의

Zoom-In

[오스탈 인수전 경쟁자 등장]

- 한화의 오스탈USA 인수전에 美 Wildcat이 등장. 반면 오스탈 CEO는 미 국방부 고위층에서 한화 거래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평가했고, 한화는 이미 본격 실사를 진행 중인 단계. 한화를 PE와 달리 미국 조선 생산성을 실제 개선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조선사로 평가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긍정적.